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이사야서 56:1,6-7 제2독서 로마서 11:13-15,29-32 복음 마태오 15:21-28

◎말씀 < 자존심과 믿음 >

우리는 자존심을 중요시합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자존심은 명예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흔히 듣는 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런 멸시를 받을 수 있어” “차라리 그만 두면 그만 두었지, 어떻게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까지 견뎌” 등은 모두 다 자존심이 명예와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복음에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철저히 멸시를 당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을 향해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개’에 비교한 것입니다. 이는 여인의 자존심을 철저히 뭉개 버리는 말입니다. 그럴지않아도 자기 딸이 아파서 근심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을 헤아려 주지는 않고 “너같은 개에게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말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비하적인 발언 앞에서 자존심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에게 매달립니다. “주님, 그럴진 합니다만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애걸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밥상밑에서 음식부스러기를 기다리고있는 개에다 비교한 것입니다. 어찌보면 별도없고 오장육부도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인의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진리 자체이신 주님 앞에서는 ‘자존심’이란 단어를 써서는 안됩니다. 진리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면 진리로부터 배척받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 자존심을 버렸기에 주님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리는 한 인간이 자존심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그 인간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인간이 자존심을 진리앞에서 버리면 버릴수록 그 인간에게로 가까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존심이 철저히 뭉개진 뒤에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잘났던 자존심이 다 무너지면서 비로소 진리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서를 보면 가나안 여인처럼 자기 자존심을 버렸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무려 세차레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란 질문을 받았을 때, 한번도 아니고 세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무척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더럽고 치사한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잘먹고 잘사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세 번의 똑같은 질문앞에서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지않고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이라고 매번 대답했습니다. 그로서 주님과의 온전한 재결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지난주 우리들 정성	
8월 18일(화)	연중 제20주간 화요일		교 무 금 주일헌금	\$ 1,780.00 \$ 566.00
8월 19일(수)	연중 제20주간 수요일		미사에물 성소후원	\$ 330.00 \$ 182.00
8월 20일(목)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		사회복지 2차헌금	\$ 113.00 \$ 315.00
8월 21일(금)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		기타수입	\$ 0.00
8월 22일(토)	복되신 동정마리아 모후 기념일		합 계	\$ 3,286.00
8월 23일(일)	연중 제21주일	오전 10시	미사참례자	학생: 0명 성인: 54명
교무금 봉헌자	이윤상(9-12월)서상훈(7-12월)최재진(8-9월)박재례(3-8월)류승교(4월)김선식. 윤재경. 이서향 김규대. 허형. 김규철(8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미사 중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 에는 왜 “아멘” 을 하지 않을까?

아멘(Amen)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사 중에 바치는 ‘아멘’ 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기도와 예물기도 그리고 영성체 후 기도 끝에 교우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이는 교우들이 사제가 바치는 기도 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도의 끝부분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마침 영광송을 사제가 바친 후에 신자들이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이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제의 영광송과 감사기도 전체에 온전히 마음으로 응답하며 동의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로 성체를 모시기 전에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면 교우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을 합니다. 성체의 모습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멘’ 은 기도를 마감하는 응답이며 주님의 뜻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동의하는 신앙고백입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 끝에 바로 아멘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성찬례 예식 중 영성체 예식의 시작으로 사제는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하고 교우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바치자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교우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로 시작되는 ‘주님의 기도’ 를 바칩니다. 그런 다음 사제는 혼자 부속기도(附續祈禱: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를 바칩니다. 부속기도가 끝나면 모든 교우가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하고 찬미의 기도로 끝맺음을 합니다. 즉 주님의 기도 그 자체로 기도가 끝나지 않고 사제의 기도와 이어지는 영광송이 “아멘” 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끝에는 “아멘” 을 붙이지 않습니다.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였다.” (느헤 8,6)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욱.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 지.마리아/이규형.제노비아/엄모니카 배미성.오틀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렛다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 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 향	봉 헌 자	구분	지 향	봉 헌 자
연	서향자.글라라의 영혼	김용문.요한	생	곽화근.요한 건강회복	곽유경.데레사
연	고상규.요한의 영혼	임프란치스코	생	김요셉,김마리아,김베드로 요안나,조마리아,성마리아	김초지.마리아
연	백봉기의 영혼	이민석대건안드레아 이선화크리스티나			
생	허준희의 영육간 건강	김은빈.발렌티노	생	첫영성체와 세례받는 친구들	김노아

간
장
종
지

◎비 오시는 날◎
평생을 다하지 못하고 먼저 떠난 이,
한밤의 빗소리로 만나는 이 고운 순간이여
그리워 가슴 아파지는 그 사람 목소리를
이것도 당신의 진정한가,내 몸 깨어 있음이여
마중기 노렌조.시인,의사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게스관광</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p>	<p>Suzie Hair World</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p> <p>Payee to: St.J.H.C</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실외미사로 인한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미사;일요일 오전10시(성당서편 정자)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 2.실외미사 준비 및 안내
실외미사 집전과 신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미사전후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 3.교무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미사중에 봉헌하시거나
사무실에 봉헌해주시고
미사참석이 어려우신분은
우편으로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CA95826
Check 발행시: **ST. J.H.C.**
- 4.첫영성체 대상자 첫고해
일시;16일(일)오전9시30분.고해실
- 5.첫영성체(세례포함)
일시;16일(일)오전10시.축하해주세요.
첫영성체:곽아인.문서인.정준영.허은주.
허준희.유니아.윤준식
세례:윤준식.윤현식
교리 수고해주신 장선영선생님께 감사드려요

- 6.놀이기구 및 바닥재 교체
신자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 7.신자 주소록
신자 주소록을 새로 마련하고자합니다.
새 주소록을 게시판에 게시하였사오니
누락되었거나 수정사항이 있는분은
구역장에게 연락해주세요.(8월30일까지)
8.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p style="text-align: center;">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 하게 하소서</p>			
전례봉사	연중제20주일(8월16일)	연중제21주일(8월23일)	연중제22주일(8월30일)	연중제23주일(9월6일)
해설				
복사	최준우.루카	최진호.다니엘	김규철.레오	송돈희.요셉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